

# CAGLIERO 11

Bollettino di Animazione Missionaria Salesiana



## 선교에 대한 돈 보스코의 꿈

**사** 랑하는 선교사, 형제 회원들, 그리고 살레시오 선교를 도와주는 친구들! 예수 성심 성월을 맞이하여 인사를 드립니다. 선교에 대한 돈 보스코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유명한 선교에 대한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돈 보스코는 한 번도 유럽 대륙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다른 5 대륙의 젊은이들에 대해서 많은 꿈을 꾸었습니다. 26차 총회 때 미사를 집전하신 민족들의 복음화 성성 장관이신 이반 디아스 추기경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강론 중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분의 꿈을 이야기 하시면서

“중국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사 후에 어떤 관구장의 외침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선교에 대한 꿈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내 생애에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돈 보스코로부터 출발하여 그가 밤낮으로 꾸었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읍시다. 그래서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Vedclav Clement*  
선교 담당 평의원

바츨라브 클레멘트 신부



## 선교구의 계획들

6월

- ◆ 4-6: 선교국, 멤버들의 모임 (젠자노)
- ◆ 18-20: 선교국, 청소년사목국, 사회 커뮤니케이션국 멤버들의 모임 (젠자노)

9월

- ◆ 1-26: 새로운 선교사들의 양성 교육(비산나, 골레 돈 보스코)
- ◆ 28-30: 선교국의 두 번째 세계 차원의 의견 청취(비산나)

10월

- ◆ 14-17: 돈 보스코 네트워크 살레시오 NGO모임(로마)

11월

- ◆ 4-10: SDB, FMA 합동 연구: 유럽의 첫 복음 선포(프라하, 체코)

## 중동과 대양주를 위해 필요한 선교사들

관구, 국가	필요한 언어	특정적인 환경과 선교사의 필요한 자질
모로코 - 터어키	터어키어	이슬람 국가, 삶을 통한 증거, 관구의 청년화를 위한 튼튼한 성소 필요
모로코 - 아랍	아랍어	아랍국가, 이슬람, 다종교 환경, 삶을 통한 증거, 관구의 청년화를 위한 튼튼한 성소 필요
파푸아뉴기니지부 파푸아 뉴기니아	영어, 파푸아어	소수의 회원, 30년 현존 후에도 소수의 성소, 기술 교육 사업
파푸아뉴기니지부 솔로몬군도	영어, 파푸아어	태평양의 섬, 소수의 회원, 10년 현존 후 소수의 지역성소, 기술 교육사업



지

금 이 편지를 파키스탄에서 일하는 7명의 회원들이 관구장과 함께 모여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들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해야 올바르게 적극적인지를 숙고하고 식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불안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프카니스탄과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역의 불안한 정치 상황은 날로 더 심해지고,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 받지도 못하고, 실업으로 인해 높은 세금을 감당하기도 힘들며, 기본 생활을 위한 물가들의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훨씬 어려워지리라 예상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계속하여 매일 마주치게 되는 은총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 보스코를 통하여, 우리 학생들과 평신도 동역자들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희망의 이야기와 작은 기적들을 전하는 증인들입니다. 약 12년 전에 돈 보스코의 사업이 파키스탄에서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2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Quetta에 있는 공동체에서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규 교육과 비정규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직업교육, 젊은이들을 위한 기숙사 그리고 지역의 가난한 가족들로부터 매주 800명이나 모이는 축일 오라토리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동체는 Lahore에서 직업 학교와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원하신다면 얼마 후에는 다른 곳에서도 새로운 일을 하게 되겠지요.

우리는 파키스탄의 젊은이들과 함께 여정을 하였고, 그들에게 배울 기회를 주고 비록 종교가 다르고 언어와 신분이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조화롭게 살고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곳에서 내가 더 몰두하는 것은 돈 보스코의 진가를 전하는 것 아니 돈 보스코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 낙관주의, 이성, 친절함 사랑, 음악,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애로운 예수의 메시지, 용서와 관용 이런 것들이 종교가 다르고 말하는 언어와 심지어는 피부의 색깔이 달라도 아무 관계없이 젊은이들의 마음속으로 침투해 저항 할 수 없는 부르심을 만들어 냅니다.

사실 나는 파키스탄에 이제 막 도착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나는 이곳 언어를 배우고 있는 중이며 나에게는 아주 매운 이 곳 음식을 먹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여름에는 무섭도록 덥고 겨울에는 매우 추운 이 곳 기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전통과 습관들을 이해해야 하고 향수병과 때때로 찾아오는 외로움도 극복해야 합니다. 내가 2008년 139차 선교사 파견 팀에 속하지만 입국을 위한 비자를 2009년 8월에서야 겨우 받았습니다. 비자를 받기 위한 긴 기다림은 이미 나에게 커다란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인내하는 법을 배우도록 차츰 준비 시켰나 봅니다. 이곳은 참으로 커다란 인내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인구의 98%가 신자인 나라에서 왔는데, 아주 적은 수의 신자가 있는 이곳에서는 선교하고 사목하는 방법을 바꾸고 변화 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때때로 전쟁과 폭격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도 공동체 형제들의 현존과 격려가 내가 혼자만 아니라는 것을 느끼도록 확신을 줍니다. 제발 파키스탄에 있는 우리 회원들과 평신도 동역자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매일의 걱정과 시험을 넘어서 하느님 은총의 사업을 바라보며 희망하며 용감히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느님의 은총이 느리고 조용하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끌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카르멜로 마르티네즈 필리핀 평수사, 파키스탄 선교사



살레시오 선교 지향

남아시아 살레시오 회원들을 위해

남아시아에 있는 살레시오 회원들과 살레시오 가족들이 (특히 방글라데시) 복음 선포의 총체로서 자신의 나라에서 사회, 문화적 환경 그리고 정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 시키는데 용기를 갖도록 기도 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소수인 남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 지역과 우리의 학교 사업체들에 있는 모든 비 그리스도인들과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용기와 많은 인내가 필요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으로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기대 하면서 모든 사람의 기초적인 필요에도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Invia i tuoi suggerimenti e contributi a [cagliero11@gmail.com](mailto:cagliero11@gmail.com)